주일예배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11월 15일 (제138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우칼럼

이웃을 돌아보라

추수감사절이다. 한 해 동안 넘치도록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실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이라 생각한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고 말씀하셨다. 굶주린 이웃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요, 헐벗은 이에게 옷 한 벌 입히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란다. 그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웃을 챙긴 그들을 의인이라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셨다.

레위기에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 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레19:9~10)고 말씀하셨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곡식을 모두 거두지 않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일부를 남겨두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과 나눔의 법이었던 것이다.

힘든 하루를 견디는 이웃이 있다. 고통 속에서 헤매는 형제가 있고, 곳간이 비어 배고픈 이웃이 있다.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다. 상처 입은 이웃을 외면하고 하나님 일한다고 제 갈 길을 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를 치료하고 먹인 사마리아인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풍족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배만 채우라는 뜻이 아니다. 내 손을 통해 이웃을 살피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히13:16).

아는 것이 없으면 자유를 만끽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마귀도 일하는 법이다."

'늘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당부가 쉬인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이다. 예루살렘 성산에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을 감지한 마귀의 훼방은 만만치 않았다.

9일 오전 9시 38분, 성도들을 태운 버스가 경기 화성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탄터널 내부에서 5중 추돌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터널 내부를 달리던 승용차와 화물차 등 2대가 부딪히면서 시작됐고, 뒤이어 오던 전세버스들이 추돌하면서 벌어졌다.

누군가는 '왜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달랐다. "우리가 기도했기에 크게 다친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였다. 역시 예수중심교인들은 생각과 믿음이 다르다. 그러니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것을 듣지 않으셨을까. 이 집회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쏟으시리라.

첫날 저녁, 목사님은 '아는 것이 없기에 두려운 것이다. 배워야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오늘 기도원으로 향하던 버스가 사고당한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예배에 앞서 버스에 탔던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체크하고 안수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도리어 '목사님, 우리가 기도해서 이 정도로 끝났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셨죠? 저희는 괜찮습니다. 힘내세요.'라며 저를 위로해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일로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잠24:10)고 말씀하셨기에 더 기도하고 담대하게 이 단에 섰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던 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1:9). 모세가 떠난 후 두려움을 갖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42년의 목회 여정을 뒤돌아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투성이였습니다. KGB에 끌려가기도 했고, 재판정에 서기도 하고, 테러 협박. 최루탄 협박, 몽둥이로, 칼로, 권총으로 협박도 무수히 받았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전 더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왜냐? 죽으면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죽은 다음에 면류관을 받을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호4:6)는 말씀을 잘 알 것입니다. 아는 것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영어를 모르니까 외국인을 만나면 두려운 겁니다. 영어를 잘해보세요. 겁날 게 없지요. 지식이란 아는 겁니다. 자신감이란 실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식 있는 자, 재력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목사들도 그런 성도들이 떠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자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잠29:25).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히13:6).

모세, 엘리야, 여호수아, 갈렙, 에스더,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에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롬8:31).

아는 것이 힘이요, 자유의 근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나를 괴롭히는 놈이 누구인지 알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송현혜 기자



2026 추계산상집회(11월 9일~12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6:5~13)

성령의 인도함만 받으면 내 삶에 장애물이 없다

"이 목사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주님이 제게 물으시면, 저는 지체 없이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해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이 종이 원하는 바입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사 항상 저를 인도해주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고,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떠날 것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14:16~18).

'보혜사'란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첫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보혜사는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십니다. 곧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임재이고,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까지 말씀하시며 성령을 강조하셨고(요16:7),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향해, "성령을 받으라"(요20:22) 하셨으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행1:4~5).

나의 영·혼·육을 점검하자
점검 부재가 사고원인이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성령을 강조하셨을까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삶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고, 그것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즉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고,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8:16).

평사원에서 임원만 돼도 바뀌는 것이 많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아버지 계신 곳에 자녀가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니까요.

둘째,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세상에서도 왕의 자녀에게 권세가 있듯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1:8). 어떤 권세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7~18).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장애물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원수요, 적인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이 있어 장애물을 놓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게 됩니다.

북한이 없다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평화롭지 않겠지요?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경계선을 넘고, 핵을 만들고 있으니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북한이 우리에게는 큰 장애물인 셈입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가 똑같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넘어지고, 싸우고, 망하고, 아프고 그런 겁니다. 그것들만 없애면 우리 삶이 평안하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들을 물리치라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무기를 주신 셈입니다. 그 무기는 북한이 소유한 핵보다 훨씬 강력하기에 우리 삶 앞에 진 치고 있는 장애물 따위가 걱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앞에 복종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25대 왕, 철종과 같습니다. 그는 본시 왕족이었지만 농사를 짓는 농사꾼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만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습니다. 강화도령에서 졸지에 조선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누려보지 못하고 수렴청정을 당합니다. 지금 철종 꼴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확 바뀌었건만 권세를 모르니 여전히 귀신이 수렴청정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맘대로 우리 삶을 쥐락펴락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알긴 아는데 이 은사를 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다 녹이 슬게 됩니다. 우물도 퍼내야 마르지 않고, 작은 옹달샘도 계속 흐르기에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성령의 은사를 쓰지 않으니 녹이 스는 겁니다. 자동차를 잘 모셔두면 못 쓰게 되지요? 성악가도 오랫동안 노래를 안 하면 목소리가 안 나오지요? 성령의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게 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절대 성령의 능력은 닳아 없어지지 않으니 염려 말고 사용하세요. 자주 쓰는 열쇠가 잘 열리듯 계속 은사를 사용하면 더 큰 능력이 와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는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그 능력으로 말씀을 이룬다는 뜻 아닙니까?

아픕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프게 하는 귀신아 가라!" 하세요. 가난합니까? 가난도 마귀의 짓이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을 가지고 온 귀신아 가라!" 하십시오. 분명히 떠납니다. 이것들은 한 번 물리쳤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살전5:19). 능력도 사멸되거든요.

성령 충만을 입는 방법은 기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무엇을 했습니까? 일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고 말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습관처럼 기도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당부하기는 방언기도를 많이 하십시오(엡6:18). 방언은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로, 방언으로 기도해야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 4시간, 집회 때면 7시간 이상을 기도하는데, 그중 80% 이상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세계에 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여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절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막9:29). 성령은 장애물만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를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사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요16:13),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사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갈5:22~23).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
우리 모두 천국생활하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은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로 성령 충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니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음은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냥 사람의 자녀이고, 따라서 권세와 능력이 없어져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손에 공깃돌처럼 마음대로 가지고 놀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입습니다. 그런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그런 자의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을 것입니다.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전10:10). 할렐루야!

:: 객원칼럼 ::

주신 것과 주실 것을 감사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수확물을 추수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뿐만 아니라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한 절기다(신16:13~17). 앞으로 손대는 일마다 잘될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여 생명과 복을 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내용은 '추수하는 것과 수장하는 것', 두 가지의 의미를 둘 수 있다.

하나님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일 년 삼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찌니라"(신16:16~17) 고 했고, 또 15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찌니라"고 하셨다.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한 주실 것을 인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말씀이다.

성경에서는 집을 건축했으나 남이 들어가 살며, 약혼을 했으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포도를 심었으나 다른 사람이 과실을 먹는 것이 저주라고 말씀한다(신28:30). 피땀 흘려 희생하고 애쓴 결과가 남에게 돌아가는 것이 저주라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어리석은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창고를 늘리고 많은 재산을 쌓아 놓았지만,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추수한 것도 큰 은혜요, 이것을 창고에 넣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이니 추수하는 것과 수장하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신다. 이미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소유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를 알아야 한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영혼에 보장된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이는 불행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이 명하신 복을 사모하여 그 복이 자신에게 머물게 해야 한다. 야곱은 얍복강에서 물질이 넉넉한데도, "나에게 축복하소서." 하며 몸부림친 것처럼, 우리도 이 신령한 축복을 매일 열망하고 사모해야 한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초막이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임을 알고(히11:16), 육신의 장막 집이 무너질지라도 우리 영혼이 거할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다(고후5:1~4).

이렇듯 추수감사절은 세상 마지막 날, 이 땅의 수고에 대해 하나님이 보상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소망이 충만한 절기다(계21:3, 22:12).

신기류 목사

:: 경배와 찬양 ::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며칠 전,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카페는 주문하는 줄과 주문 후 음료를 받아 나가는 동선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 순서로 주문을 마친 분이 나가는 길이 아니라,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쪽을 지나쳐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옆에 나가는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정해진 길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나갈까?'

제 차례가 되어 커피를 주문한 뒤, 화장실에 가려고 이동하던 저는 순간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전 앞사람을 보며 '왜 저럴까' 하고 생각했던 제가 정작 화장실에 가기 편하다는 이유로 주문 줄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하.

'나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리를 맡는 것은 괜찮고, 남이 자리를 맡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내가 차선에 끼어들면 '사정이 있어서'이고, 남이 끼어들면 '매너가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잘못이나 실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넘어가도, 다른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곤 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아, 저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구나.' 하며 멋쩍었던 경험 말입니다.

그러기에 먼저는 나를 돌아보고(마7:3~5),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목사님 말씀처럼,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보는 눈과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눅6:37)을 생각하며, 넓은 시야와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고 하루하루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윤에녹 전도사



:: 신앙논객 ::

오늘이고, 지금이다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 하프마라톤 대회에서 결승선을 500m 앞두고 한 여성 러너가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SNS상에서 러닝을 매우 즐기고, 또 잘 뛰는 인플루언서로, 2월에 있었던 마라톤 대회에서는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의 실력자였다. 그녀가 국내 굴지의 과학기술 명문 대학의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이었기에 소식을 접한 이들의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총회장 목사님의 18번인, "인간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씀이 떠오른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 유명한 사람, 부자인 사람,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큰 부와 영광을 누렸다는 솔로몬도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27:1).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이고, 천국에서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계22:12).

그런데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당장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을 소홀히 한다. 더 배우려고, 더 만나려고, 더 모으려고, 더 잘 살려고 아등바등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나 있다. '내일부터(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하지 뭐',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그때부터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나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일, 나중에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려는 것이다. 과연 나에게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고.

총회장 목사님이 왜 은퇴도 없이 부단히 국내외 집회를 배설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활을 거시겠는가. 선을 행하고 상급 쌓고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바로 오늘이고, 지금이다. 내일은 능력 밖이다.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주의 일을 찾아서 하라. 지금이 은혜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신혁주 전도사

:: 생명의 말씀 ::

교회가 해야 한다

어려서 다니던 주일학교에서 남녀가 서로 자기소개를 하던 포크댄스 시간이 있었다. 원을 그려 서로를 바라보며 상대의 이름을 묻고 대답하며 알아가는 동요였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OO입니다. 그 이름 아름답군요!" 한 바퀴를 다 돌 때까지 내 이름을 반복하며 춤추며 인사하던 노래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노래처럼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 자기 정체성을 온전히 발견할 때 나를 만드신 분의 목적대로 방황하지 않고 자족하며 기쁘게 살아가니 말이다. 마태복음 25장처럼 누구에게나 달란트(재능)를 주권대로 나눠주셨기에, 주인의 기쁘심을 목표삼아 개발하고 열매 맺기에도 짧은 인생이다. 모든 달란트의 최종 목적은 결국 주인에게로 향해야 한다. 향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유일하게 닮은 우리 인간은,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 안에서만 내가 온전히 알려진다. 마치 거울을 볼 때 지금 나의 현 상태가 적나라하게 알려지듯이 말이다.

세상은 점점 살기 편해지고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많은 것을 AI에게 외주를 주고 남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며 행복해지라고 한다. 교회라는 제도권에 구속받지 말고, 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라고 유도한다. 심지어 기술이 모든 것을 구원할 것이라는 허황된 비전까지도 주입한다.

반도체, AI기술, K문화수출의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정신의학과 내원 상담자들 중에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다는 어느 정신의학과 교수의 언급을 들었다. 참으로 안타깝다. 어려서부터 미디어 문화에 노출되어 스스로 고립을 즐기며, 나를 점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교회에 많은 가능성을 주셨다. 어디서도 가르치지 않는 자기 정체성을 가르치는 곳이다. 또한 이해관계 없이 여러 세대가 어우러져 예수를 중심으로 성품 훈련도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일! 인간의 정체성 발견도, 구원을 위한 일도 교회에 주신 유일하고 막중한 사명이다. 교회가 해야 한다.

송직화 목사

:: 일본에서 온 편지 ::

인생의 그늘막

일본의 지난여름은 정말 뜨거운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길을 걸어갈 때 그늘을 찾아가며 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늘을 찾아 걷는 이들을 보며 주님의 날개 아래 그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시36:7).

모든 사물에는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와 그늘이 생깁니다. 작은 그늘은 '그림자'라 부르며, 사람들이 들어가 뜨거운 해를 피할 수 있는 크기가 되면 '그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빛을 받아도 자신의 그림자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이에게 그늘까지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림자만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웃에게 그늘과 열매까지 주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많은 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큰 그늘이 되어야 하고, 나에게는 이런 그늘이 있는지 살피며 그늘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룻4:1).

보아스는 기업 무를 자의 이름을 불렀을 텐데, 왜 성경에는 아무개로 불렀을까요? 성령께서 자기 이름만 중요시하고 자기 기업만 중요시했던 사람의 이름은 지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무개는 계산적, 이기적,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한 그의 이름은 잊히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업 무를 자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내 이름은 없이 그냥 아무개로 불리며 설지, 아니면 보아스처럼 살아서 다른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삶을 살지는 우리 몫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은 젊어서부터 미리 은퇴 준비를 잘한다고 합니다. 노후의 안락함을 위해서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위한 은퇴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있기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확신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그늘막을 만들고 제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어두움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서동경 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Good News

"너무 늦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놓쳐버린 기회와 되돌릴 수 없는 잘못 앞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새로운 소망을 얻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시간도, 선행을 쌓을 기회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는 형벌이 마땅하다고 인정하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3:42~43).

강도가 받은 구원의 약속은 그가 착하게 살아온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한 그에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천국은 훌륭한 이력서를 내밀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십자가 위의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을 믿고 살아갈 오늘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죄로 얼룩진 과거가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와 영원한 생명의 약속,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는 좋은 소식(Good News)입니다.

상화평 목사

:: 특별기고 ::

옥중서신

소수민족을 복음화하는 사역을 하다가 중국공안에 의해 잡혀 감옥에 갇힌 목사님의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 전도자 손승호는 이곳에서 사랑하는 여러 동역자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여기에 들어왔을 때 저는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두려워하였고, 도저히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여 마음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 꾸준히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 외의 시간에는 저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저주는 날마다 구체적이고 세밀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사랑과 그 십자가의 빛이 저에게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크나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그 감동이 저를 그 어둠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맛보게 되었습니다. 방황하는 저에게 등대와 같이 저의 길을 비추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들을 용서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서할 뿐 아니라 포용하는 것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또한 이 옥중 서신을 볼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이유로 그들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이유로 그들을 미워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저들과 같이 저주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실 용서와 사랑은 말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돌봐주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기회가 되면 후일에라도 여러분 앞에서 직접 사과할게요.

저는 동역자 여러분들을 본보기로 삼고 이 길에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걷기 힘들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 길은 가시밭길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려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담대하게 끝까지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손승호, 옥중에서

:: 신앙에세이 ::

감격의 순간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첫째 아들의 어릴 적 영상을 보며 아내가 말했다. 저 어릴 때의 아이를 다시 만나 안아주고 싶다고. 엄마가 최고이던 볼살 통통한 아기 같은 시절의 아이가 벌써 가족과의 시간이나 대화보다는 친구들만 좋은 중학생이 되어 그때의 아이는 그리운 아이, 또 그리운 시절이 되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를 지나가고 있다. 하루하루 올라오는 감정과 씨름하느라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루를 살아낸다. 해야 할 일들이 많아 힘이 들어서, 내일 하루를 또 살아내야 해서, 원래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듯 하루를 보낸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오늘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라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흘려보내던 평범한 한순간 한순간은 사무치게 애틋한 감사의 순간들이 된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사랑하는 이와 눈 맞추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얼굴을 보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사계절을 경험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모두 다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감격의 순간들로 변한다.

미래의 내가 그리워할 순간에 지금 내가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감정이 아닌 감격의 순간들로.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감사했음을 고백한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찜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전7:10).

박찬영 집사

